



박소현의 섹.시.토크

“다시 사랑이 하고 싶다.”

우리는 적당히 달궈진 대로변 휴게소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 외곽에 있는 오리고기 집에서 점심 먹고 나오던 길에, 자판기 커피나 한잔 하자고 잠시 멈춘 길이었다.

바람에 뿔뿔이 휘날리고 있었더라면, 비라도 촉촉이 내리고 있었더라면 친구의 말이 좀 더 실감나게 들렸을까? 그러나 불꽃없는 국도변의 휴게소 마당에서 마늘냄새를 풍길 풍기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끈끈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거기다 한 친구는 식당에서 들고 나온 이쑤시개로 아직도 어금니 쪽을 파고 있던 중이었다.

“사람이 진지하게 말을 하면 대꾸라도 좀 해.” “뭐라고 대꾸해? 능력 있으면 하든지.”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총각이라도 하나 생겼어?” “오리고기 먹여 줬더니 힘이 뻗어서 저러는 거야.” “어휴, 말하는 품새를 하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진짜 순수한 사랑이잖아.”

친구가 끈끈함이 순수한 사랑을 인생의 화두(?)처럼 외친 것은 어젯밤에 시청한 드라마의 영향이 컸다.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처음 확인하고 첫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이 부

분에서 친구는 키스가 아니라 입맞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다.)

“입술이 그저 살짝 닿았을 뿐인데도 눈곱물이 파르르 떨어더라.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같더라구.”

“하긴,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는 남편 때문에 온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일은 있어도, 그렇게 살짝 닿은 입술 때문에 눈곱물이 파르르 떨리는 일은 도통 없지.”

대로변의 열기는 여전하고 입속 마늘냄새도 여전했지만, 우리는 차츰차츰 친구의 낭만적 분위기에 동화되어 갔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속박업소

기웃거리는데 연애 말고 손만 잡아도 가슴 떨리는 그런 연애를 해 보고 싶다고.”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밤새고 말이지.” “그러다 첫 키스라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기분일까?”

그런데 점점 더 상심무드를 타고 있는 대화에 한 친구가 찬물을 끼얹었다.

“니들이 아무런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해도,

“아~ 요라도 하고 싶단다” “XX 한다”

분명 손잡고 키스하고 여관 가는 데까지 이상 안 걸릴 걸. 장담할 수 있어.”

왜 산통 다 깨냐는 듯 다들 그 친구를 흘려 봤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손만 잡고 긴긴 밤을 보낼 수 있잖아.”

“웃기지를 좀 마. 니들은 벌써 루비콘 강을 건

넠다구. 밤마다 그냥 자는 남편들 때문에 입이 뺏 벌어 나갔으면서 무슨.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가 손만 잡고 긴긴 밤을 보내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친구 말은 그렇게 눈곱물 파르르 떨어가며 어설픈 입맞춤을 할 때 그것이 무어 큰 의미가 있냐는 것. 그런 관계도 여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그냥 지나고 옆구리 찢어대는 관계로 변할 텐데 말이다.

“그런 관계가 의미 있는 건, 그런 순수가 필요한 시기와 맞아떨어질 때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왔잖아. 그걸 다시 반복해 봤자 그건 일종의 ‘쇼’나 다름없잖아. 알면서 모르는 척 내숭 떠는 게 뭐가 순수냐?”

친구 말처럼 내용이나 떼개 필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경험을 해 봐야 아는 일. 사실 그런 흥미를 날 기회조차 없는 우리로서는 입 아프게 이러한 것도 시간낭비에 불과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친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배우처럼 멋지게 마지막 대사를 날려 주었다.

“아, 쇼라도 하고 싶다.”

〈연애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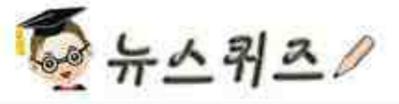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가 손만 잡고 긴 밤을 보내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분명 손잡고 키스하고 여관 가는 데까지 이상 안 걸릴 걸. 장담할 수 있어.”

왜 산통 다 깨냐는 듯 다들 그 친구를 흘려 봤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손만 잡고 긴긴 밤을 보낼 수 있잖아.”

“웃기지를 좀 마. 니들은 벌써 루비콘 강을 건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들



67. 지난달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0회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

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동양계 여배우로는 홍콩 정만위(2004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 ① 전도연 ② 이영애 ③ 전지현 ④ 송혜교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음 4월 23일 癸酉)

36년생 여유 있게 생각하라 계획은 꼭 성사 될 것이다. 48년생 진위를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60년생 자녀의 고종이 보이니 대하하면 풀리리라. 72년생 불연이면 이별수도 있으니 대화로써 해결하라. 84년생 형제 부부가 도우니 모든 일이 경순하다. 행운의 숫자 : 04, 42

37년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49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이 풀리다. 61년생 수리를 억류하면 결과는 없다. 73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5년생 큰일은 아니니 들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몰아라. 행운의 숫자 : 06, 28

38년생 타인과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0년생 망신상이 열려되거나 지난 일을 회개하라. 62년생 타인의 입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니 주변인에게 배풀어라. 74년생 안고 끌어 안고 나으니 생각한 것을 일단하라. 행운의 숫자 : 02, 43

39년생 애정문제로 구설수가 생겨나다. 51년생 인생의 경험이 후반전의 전라니 지혜롭게 진행하라. 63년생 아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75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영정을 되살려라. 행운의 숫자 : 05, 26

40년생 아내를 남편을 남편 아내를 살펴봐라. 52년생 남편이 고민한다. 결에서 살펴봐라. 64년생 친구의 지혜를 빌려 손님을 줄일 수 있다. 76년생 젊음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선택의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 01, 35

41년생 교통이 따를 수도 있으니 심상을 경건히 하라. 53년생 미리 준비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65년생 힘의 안배를 조절하면 만사가형통하다. 77년생 친절한 접근자의 말은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8, 32

42년생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54년생 화평점점 마무리가 좋으니 재물도 얻으리라. 66년생 옛 일은 잊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78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관사가 생기니 해결은 곧 된다. 행운의 숫자 : 14, 38

43년생 새로운 문서에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다. 55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짐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67년생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은 쉬워진다. 79년생 빚을 내고 나가보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29

44년생 지난 일이 괴롭힐 수 있으니 옛 일을 살펴봐라. 56년생 욕심이 부풀었다 변화를 삼가 하라. 68년생 친할수록 조심하라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80년생 눈물이 보일 수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03, 45

45년생 미운사람이 보이면 말조심을 해야 한다. 57년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니 소독은 작다. 69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81년생 예인이 생기지만 마음에는 안 든다. 눈을 감고 쳐다보라. 행운의 숫자 : 09, 36

46년생 작은 병도 살펴보면 큰 병을 막으리라. 58년생 분수를 지키면 큰 화도 비껴간다. 70년생 욕심을 버리라 큰 득은 없을 수다. 82년생 인생행로에 변화수가 보이니 심사숙고하여 움직이라. 행운의 숫자 : 07, 40

47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소화가 그된다. 59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71년생 할려는 나타내니 큰 도움은 못준다. 83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21, 25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연애 전문 리포터 조영구(40)와 쇼호스트 신재은(29)이 사귀는 것 맞아?

노총각 MC 조영구와 쇼 호스트 신재은의 열애설이 인터넷을 달궜다. 네티즌들이 조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신재은씨가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열애설에 대한 양측 해명이 차이가 나자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잇따랐다.

신재은씨는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현대홈쇼핑에 입사해 쇼호스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조씨측이 “지인의 소개로 신재은씨를 몇 번 만나

정형돈 결혼설 진짜일까? 네티즌 관심 증폭

“결혼 얘기가 오갈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SBS ‘진실게임’에서 결혼 계획을 깜짝 공개한 개그맨 정형돈도 시선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진위 여부를 맞추는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에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정형돈은 이날 방송에서 예비 신부라고 박보름(26)씨를 소개하고 “9월 8일 결혼식을 올린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혔는데 진위 여부는 다음주 공개된다.

또 아역 탤런트 출신 연기자 황치훈(36)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1980년대 MBC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등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아역 탤런트 출신으로, 현재 외제차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치훈은 지난 1일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이화여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총각 MC 조영구와 열애설에 휩싸인 쇼호스트 신재은.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13th round match between Park So-hyun and Jo Hyun-yeon. The board is numbered 1-35, showing a complex position with black and white stones.

Go board game analysis section titled '진기한 형태' (Unusual Shape). It discusses a specific Go position and provides commentary on the moves and strategies involved.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Baduk News). It reports on Jo Hyun-yeon's 9th Dan title defense and other Go-related events.

굿모닝 잉글리쉬 <922> 오하요우 니혼고 <922> 니하오 쥬구워 <113> 한자 이야기 <539>

English lesson section 'I have a toothache' (치통이 있어요). Includes English text, Korean translation, and a list of related words like 'hard to bear', 'pretty', 'swollen'.

Japanese lesson section '何がよろしいですか' (무엇이 좋겠습니까). Includes Japanese text, Korean translation, and a list of related words like 'お疲(つか)れる', 'かかると', '入(い)れさせる'.

Chinese lesson section '这饺子非常好吃' (이 만두 정말 맛있다). Includes Chinese text, Korean translation, and a list of related words like '饺子', '邻居', '四合院'.

Chinese lesson section '附和雷同 (부화뇌동)' (붙을 부, 화할 화, 우뢰 뇌, 같을 동). Includes Chinese text, Korean translation, and a list of related words like '부화뇌동', '부화뇌동'.